

## \*말의 수준을 높여서, 자신을 향상시키십시오

욕설, 신성 모독, 저속함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 해 봅시다.

우리 대부분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한 언어가 일반적으로 틀렸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중, 누구도 맹세하지 않습니다. 제가 욕을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지미 킴멜이 아이들에게 어떤 무례한 단어를 알고 있는 지를 물어보는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ufXMf8supl>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한편, 군중들은 한 소년이 욕을 할 때, 환호성을 지르고, 또 다른 한 소년이 모욕적인 말 (<https://www.youtube.com/watch?v=zufXMf8supl>)을 할 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속한 언어가 옳지 않다고 느끼지만, 그렇게 나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 제 어휘에서 모든 저속한 언어를 제거하려는 핵심적인 동기는 여기 있는 한 남자가 예수님께서 그런 언어를 쓰시겠냐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이전에, 나는 저속한 언어가 끔찍한 상황을 묘사할 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들어, 비극적인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격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조차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です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서투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1)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 정말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2)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3)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나 직장에서의 문화입니다; 4) 습관입니다 ; 5)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6) 어린 아이들이 듣지 못하는 한, 괜찮습니다.

제 1 독서는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둘째 계명은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탈출20:7)입니다. 교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장난을 치는 것은 그들을 놀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그분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을 믿는 우리의 친구들 중 몇몇은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이 “나는 있는 나다”(탈출3:14),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분께서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께서는 예수라는 다른 이름을 갖게 되셨습니다. 교리는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그분은 침묵, 사랑 어린 흠숭 속에 마음 속으로 간직되어야 한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 외에는 그분의 말씀에 소개하시지 않을 것이다”(2143).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듣는, “오 마이 갓,” 이라고 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악행입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도덕 신학자 저메인 그리세즈(Germain Grisez)는, 하느님의 이름을 무심코 사용한 것은 신성 모독은 아니지만, 불복종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오용할 때, 그분을 모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용서될 수 있는 죄(소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느님을 모욕하거나, 하느님을 증오하는 말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대죄)일 것입니다 (Germain Grisez, *Living a Christian Life*,

67).

- 같은 방식으로, “지옥으로 가라!”는 말과 같이, 별 뜻 없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소죄입니다. 그리고 비디오에서 종종 빼 소리를 내는, 저속한 언어는 소죄입니다.

이제 복음을 보고, 하느님께 대한 존경에 대해 세가지를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을 보십니다.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왜일까요?

- 첫째, 그분께서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요한2:16)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느님을 숭배하는 장소였고, 여기 보이는 (<https://holylandphotos.files.wordpress.com/2016/08/templebuildinguse.jpg>), 이것은 이방인들의 커다란 궁전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 분이신, 진정한 신,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람들이 동물을 사고 파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기도하러 오는 곳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마르코 복음에서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11:17)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느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썼습니다 (*Jesus*

*of Nazareth, Part 2, 18*).

-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욕을 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우리의 위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복음화를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만약 우리가 문자, 이메일 또는 게시물에서 무례하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더

높은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문화로 “오, 하느님!”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1시 2분 기도카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나은 말을 하기를 요구합니다. 4월 25일 부활절 이후에 시작할 알파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11시 2분 기도를 다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 둘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하신 후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요한2:17)라고 쓰여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할 때, 그것은 고립으로 이어진다고 말씀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욕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은 약한 사람들, 즉 두 발이 깨끗한 사람들이 불쾌한 것을 감당하지 못 하기 때문에 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할 때조차도 옳은 일을 하고, 욕을 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움츠리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그러니 성인이 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겁먹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강인하게 지낸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경할 것입니다.
- 셋째, 베네딕토 교황은 열정은 자기에게 베푸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오늘의 반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한다면, 우리의 말은 바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긍정의 말, 격려의 말, 혹은 심지어 도전의 말들만

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어떨까요? 언어와 사랑은 함께 합니다.

언어가 변할 때, 사랑이 변합니다.

여기 오늘의 간단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향상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아직 사순 광야 체험을 지내고 있습니다. 2세기에서 4세기에  
걸쳐 이집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세상을 완전히 버리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 극단적으로 노력했던 세분의 광야의 아버지들에 대한  
인용구로 마치겠습니다. 1) 팸보 성인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후, 회개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압바 아누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내려진  
이후로, 내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3) 그리고 압바 오르에 대해 “그는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필요없이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Douglas

Burton-Christie, *The Word in the Desert*, 146).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사랑을  
바꾸십시오.

+ 찬미 예수님

3월 6/7일 저스틴 신부님의 강론이었습니다. 모두 성령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기도중 낙태종식에 대해 한번쯤  
묵상해 보시고, 낙태 종식을 위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낙태종식을 위한 기도문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생명을 주시는 분도,  
거뒤틀어주시는 분도 오직 하느님 한 분임을 온 세상이  
깨닫게 하소서.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당신의 은총도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인간의 잘못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태아들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낙태의 위험 앞에 놓인 모든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낙태의 유혹에 빠진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  
죽음의 문화를 물리치고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게 하소서.

태아들의 수호자이신 과달루페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